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심효근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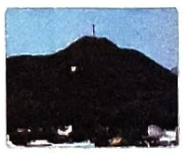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33 호 2009년 12월

시린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채워지는 12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어 이웃을 돌아보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INDEX
2 성탄절 문화의 회복이 시급하다
4 · 5 성시화가 희망이다!
6 주님의 부요함이 머무는 교회(창대교회)
8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사랑



9 | 이스라엘에 마사다가 있다면, 춘천엔 봉의산이 있다.



13 | 파이팅 템테이션스



성탄절 문화의 회복이 시급하다

글. 편집위원장 최영조

성탄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시간이다. 오색 빛이 찬란한 거리의 성탄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선물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만든다. 성탄절에는 온 세상 어른들이 아이로 돌아가고 아이들은 동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된다. 연인들은 거룩한 성탄절에 서로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또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묻지 않는다.

세속주의와 상업주의는 성탄절을 만인의 축제로 승격시켜 놓았지만 성탄절이 던지는 진정한 질문들은 막아버렸다. 번쩍이는 네온 싸인 아래에서 사람들은 흔들거리며 목적 없는 축하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세상의 부정의와 갈등은 사람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나 잔잔한 기쁨은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관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정점으로 만원사례를 이루고 화려한 백화점 불빛은 소비를 재촉한다. 성탄절이 이렇게까지 퇴색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본래 의미를 잘 살린 성탄절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세속사회에 성탄절 문화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조용한데, 교회 밖에서는 이상한 방식, 이상한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려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패배의식에 젖어 우리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외부로 향한 문을 닫고 있다. 성탄을 바로 알리는 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이다. 성탄절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성탄의 본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탄을 바르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탄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교회는 신자가 아닌 불신자를 위한 곳이다. 교회는 불신자를 위한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신자를 위한 호화 유람선이 되어 가고 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가 문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경건을 말하는 동안 문화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제 새로운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 불교는 석탄일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불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교회는 이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과거 가지고 있던 좋은 문화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문화를 회복하는 노력에 게으른 나머지 문화 전성시대가 이르자 N세대의 문화소비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과거에는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였다. 이런 문화는 당시에는 충격이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성탄문화가 있는가? 너무 빈약하다. 줄 것이 없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제는 무너진 성탄절 의미와 함께 문화를 다시 쌓아야 할 때이다. 교회가 연합하여 성탄의 본질과 의미, 문화를 회복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겠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예수, 이웃, 거룩함, 가족, 조용함과 함께 하는 성탄절을 제안해 본다. 개 교회에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먼저 성탄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내걸면 좋을 것이다. 문구는 애매한 말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좋겠다. 또한 교회가 성탄절에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잔치를 하는 것, 12월 24일 밤 12시에 축하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각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기쁨을 알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여전히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 국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의미는 낮아짐이다.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팔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있다. 대접도 거창하게 받으려고 한다. 예수님처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공동체는 예수 체험이 중요하다.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정말 왜 기쁜 것인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기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체험이 문화를 앞서가야 한다.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이를 누리고 표현하는 것이 기독문화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도시 안에 성탄절 문화를 바로 알릴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전도의 기회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물론 춘천에서 매년 성탄절 트리 점등행사가 열리고, 또 작년에는 공지천 야외에서 성탄트리축제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 포항에서 열리는 성탄절 축제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포항시 기독교연합회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공동으로 12월이면 시청 청사 앞에서 성탄점등식과 사랑의 쌀나누기와 찬양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포항시민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알린다. 특히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성탄 불빛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도시를 밝히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기독교가 선도적 역할을 감당한다. 또한 성탄절을 즈음하여 향락 문화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찬양축제를 진행한다. 이기주의와 어둠의 문화로 유혹받는 청소년들에게 선하고 평화로운 성탄문화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증거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지상과제' 일 것이다. **성탄절은 일년중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임을 기억하자.**

자료제공. 신 성 환 목사(포항성시화운동본부 상임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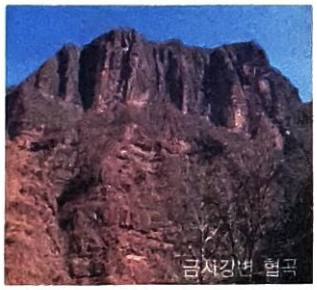




"500석 규모의 넓은 홀"
기분좋은 만남! 소중한 추억!
웨미리 뷔페
회갑연 고희연 돌/백일
각종모임 단체모임
출장뷔페 결혼식피로연 잔치음식
※돌잔치 각종 서비스 : 돌상차림, 케익, 돌잡이 이벤트, 돌잡이 용품 풍선장식, 원판사진, 압축앨범or액자, 포토테이블, 빔프로젝트 기타등등
평일 점심 상설 뷔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1:30 ~ 오후 2:00
성인 9,000원 / 7세~초등 3,000원
** 주차권 무료 발급 **
찾아오시는 길 .....
웨미리뷔페
주변주차장 무료주차
예/약/문/의
☎(033)251-2154
☎(033)251-2158

주를 따라, 주를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조 중 복 선교사 (중국 운남성)


금사강변 협곡

중국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다 못하고 죽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자를 다 모르고, 둘째는 아무리 먹어도 중국 음식을 다 먹어보지 못하고, 셋째는 아무리 관광을 해도 명승고적을 다 못 본다는 것이다. 그 만큼 한자가 많고, 음식의 가지 수가 많으며, 중국이 넓다는 뜻이리라. 이 넓은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자를 중국 서남부인 운남성으로 인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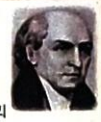
운남성은 남한의 4배정도 되는 면적에 4,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3분의 1이 소수민족인 곳이다. 운남성의 중심도시는 곤명으로 해발 1,900m의 고원지대에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은 4계절이 늘 봄과 같다고 하여 춘성(spring city)이라고 불린다. 피한지요 피서지인터라 겨울이면 많은 프로 축구팀들과 마라톤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기도 한다. 봄내인 춘천과는 이름이 너무 닮았다. 운남성의 94%는 산지이며 가장 높은 곳은 티벳과의 접경이요, 히말라야산맥의 끝자락인 매리설산으로 6,740m이며, 가장 낮은 곳은 베트남과의 접경지대인 허코우로서 해발 70m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남성에는 4계절이 늘 공존한다. 기후도 해발고도에 따라 한대, 온대, 아열대, 열대가 다 있어 동식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넌 교차 보다 일교차가 커서 하루에도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주요작물로는 화훼(난, 장미)와 각종 농산물(옥수수,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과 담배, 보이차, 커피 등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림(stone forest)과 삼강병류지역이 있고, 대리와 여강, 샹그릴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1년 동안 중국 내수 관광객만도 1억이 넘는다.

중국에는 인공적으로 건축한 만리장성과 자연 그대로의 만리장강이 있다. 이 장강을 인공적으로 막아 세계최대의 수력발전소를 2007년도에 완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삼협댐이다. 오늘도 6,380km를 도도히 흘러가는 중국 최대의 강을 장강, 양자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중 운남성과 사천성과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는 1,900km구간을 '금사강' 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 때 강물의 높이가 20-30m이상 차이를 보이는데, 물이 빠지면서 강 양옆으로 상류에서 실려온 금빛 모래가 아름답게 쌓이기 때문이다. 이 금사강 양옆의 험한 산골짜기에 주로 사는 소수종족이 바로 'ELS족' 이라는 종족이다. 하나님께서는 춘천 소양강에서 어린 시절 수영하며 놀던 필자를 40세 되던 해에 바로 이 금사강유역으로 부르셔서 ELS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징말이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를 추천한다면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 일 것이다. 한국선교사님이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한 소수종족을 복음화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이다. 올여름 딸과 함께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다양하다. 어떤 이는 아마존강으로, 또 어떤 이는 나일강으로, 어떤 이는 메콩강으로, 필자는 금사강으로 부르셨다. 이 금사강유역의 선교는 이미 100여년 전에 CIM(중국내지선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세운 교회의 형편은 너무나 메말라있다. 성도들의 마음은 말씀에 갈급한 상태이며, 그들의 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란 말씀처럼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은 물주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메시야의 긍휼의 마음으로 지난 5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위로하고, 치유하며, 물도 주고, 부채질하여 다시금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주었다. 그들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곤명에서 기차로 4시간을 간 후, 차로 2시간, 다시 배를 타고 1시간, 배에서 내린 후 최소 1시간에서 5-6시간을 걸어가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다녀오기만 하면 더 자주 가고 싶은 열망이 드는 곳이다. 자연경관이 아주 빼어나고 천연무공해 청정지역이며, 웰빙 산책로가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향후 5년 동안 금사강 프로젝트를 통해 금사강 일대의 100여개 이상 되는 미전도 자연부락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지도자들을 키워내려고 한다. 이 일은 혼자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협력해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금사강유역의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깨우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메콩강으로, 노강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금사강은 중국의 중원을 동서로 관통하며 상해까지 흘러간 후 서해바다로 들어간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선교사 열전 Ⅲ]



윌리엄 캐리 (William Carey)

- 출생: 1761. 8. 17. 영국 노스햄프턴 폴러스푸리
- 사망: 1834. 6. 9. 인도 세람포
- 사역: 인도에서 활동, 개신교 현대선교의 아버지
- 조직: 이교도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위한 특별한 침례교도 사회의 창설자 (현재 침례교 선교회라고 불린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의 죽음 전, 캐리는 친구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나의 일에 대해 많이 얘기해왔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캐리박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캐리박사의 구세주에 대해서 얘기해라"


금사강 ELS족


금사강 ELS족


한국 단기선교팀과 함께







"성시화"가 희망이다!

세계선교의 흐름과 성시화운동의 중요성

참여자: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영길 선교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 진행자: 정재호 사진: 김미경

2009년은 춘천성시화운동이 국내를 넘어 세계도시변혁선교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한해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4월, 미국 휴스턴도시변혁선교대회와 9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도시와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컨퍼런스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소개하고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도시변혁선교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였다. 성시화운동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위원회. 세계도시변혁선교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성시화운동이 세계선교의 완성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21세기 세계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박인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위원회 위원장)



선교초기의 선교방법은 선교사 각 개인이 각개전투 하듯이 오지에 들어가 온몸을 던지는 선교였다면 선교역사가 발전되면서 선교단체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협력하는 선교를 하였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세계선교는 한 개인의 각개전투식 선교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전체가 변화되는 선교정책이 흘러가고 있다.** 소위 도시변혁(transformation)이 선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제3세계의 한 도시가 한꺼번에 혁명이 일어나듯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미국의 휴스턴도시변혁선교대회나 9월, 65개 국가가 연합으로 모여 911테리현장과 UN에서 도시와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컨퍼런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춘천성시화는 이미 1960년대부터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전국적인 선교방법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높이 살 만하다.

✲ 이영길 선교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세계도시변혁선교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현재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글로벌화 되고 있다.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시간으로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며 다양한 반응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화는 선교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현대 선교는 지역선교에서 영역선교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지역복음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복음화는 그 지역의 다양한 영역별 선교로 승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도운동도 국제적 네트워크화로 진행 되고 있다. 한지역의 변화를 위해 서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도그룹들이 협력하여 기도할 때 효과적인 도시변혁운동이 전개된다. 이러한 기도운동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구체적 현안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9월에 뉴욕 UN본부에서 있었던 기도컨퍼런스는 효과적 기도운동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UN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책임자로부터 자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앞으로 춘천에서 성시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배워야할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세기 선교는 몇 가지 강조점의 변화로 말할 수 있다. 지역에서 영역으로, 선교에서 변혁으로, 성인에서 차세대로(어린이, 청소년에서 복음을 전수하는 것).**

도시변혁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영적교훈이 있다면

✲ 박인관 목사

기도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어떤 선교든 능력의 선교, 부흥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뜨거운 중보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인증된 것인데 이번 UN에서의 중보기도는 65개 국가가 도시와 국가의 변혁을 위한 중보기도를 맛보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 점에서 춘천성시화도 수십 년 전부터 평신도 지도자들이 기도를 쌓아왔고 수년 전부터는 목회자들도 힘을 합해 춘천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운동이 좀 더 뜨겁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일 것이다. 연합이 없는 도시변혁은 불가능하다. 도시변혁, 춘천성시화는 연합할 때 일어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연합하는 일은 오히려 각기 개 교회의 부흥을 돕는 일이고 더 빨리 복음화를 이루는 밑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이 연합인데 시대적 흐름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일 것이다. 그래서 연합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가 되어 지역을 위한 선교가 우선될 때 각 개교회에도 부흥의 바람이 불 것이다.

✲ 이영길 선교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도시변혁선교대회에서 진행하는 기도운동은 춘천성시화운동이 배워야할 좋은 모델이다. 춘천시를 위해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춘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에게 현안 문제를 직접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럴 때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생겨나



게 되고 현안문제에 대한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번 뉴욕에서 있었던 기도컨퍼런스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음세대를 준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세계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성시화운동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달려있다. 차세대를 성시화운동의 주역으로 일으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변혁선교에 있어서 춘천성시화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는가

*** 박인관 목사**

나는 춘천 출생으로 춘천의 분위기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춘천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춘천성시화와 관련하여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춘천을 들어 세계도시변혁선교의 강력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체험하고 있다.** 이미 세계는 춘천을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는 분명히 세계의 여타도시보다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춘천을 통해서 성시화운동은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도박과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까지 춘천성시화운동이 수출되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춘천에서 목회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실제로 춘천이 성시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정재호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은 이미 국내 주요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포항, 광주 등과 같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어 지역복음화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선교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교회를 세계교회가 "도시변혁운동과 영역별 선교운동의 총체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성시화운동"에 다시 한 번 주목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의 고장으로 춘천은 이제 "성시화된 춘천"을 세계 교회 앞에 모델로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춘천성시화를 위해 모든 교회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성시화가 희망이다.



인도정의당 대표 '우딧 라지'의 한국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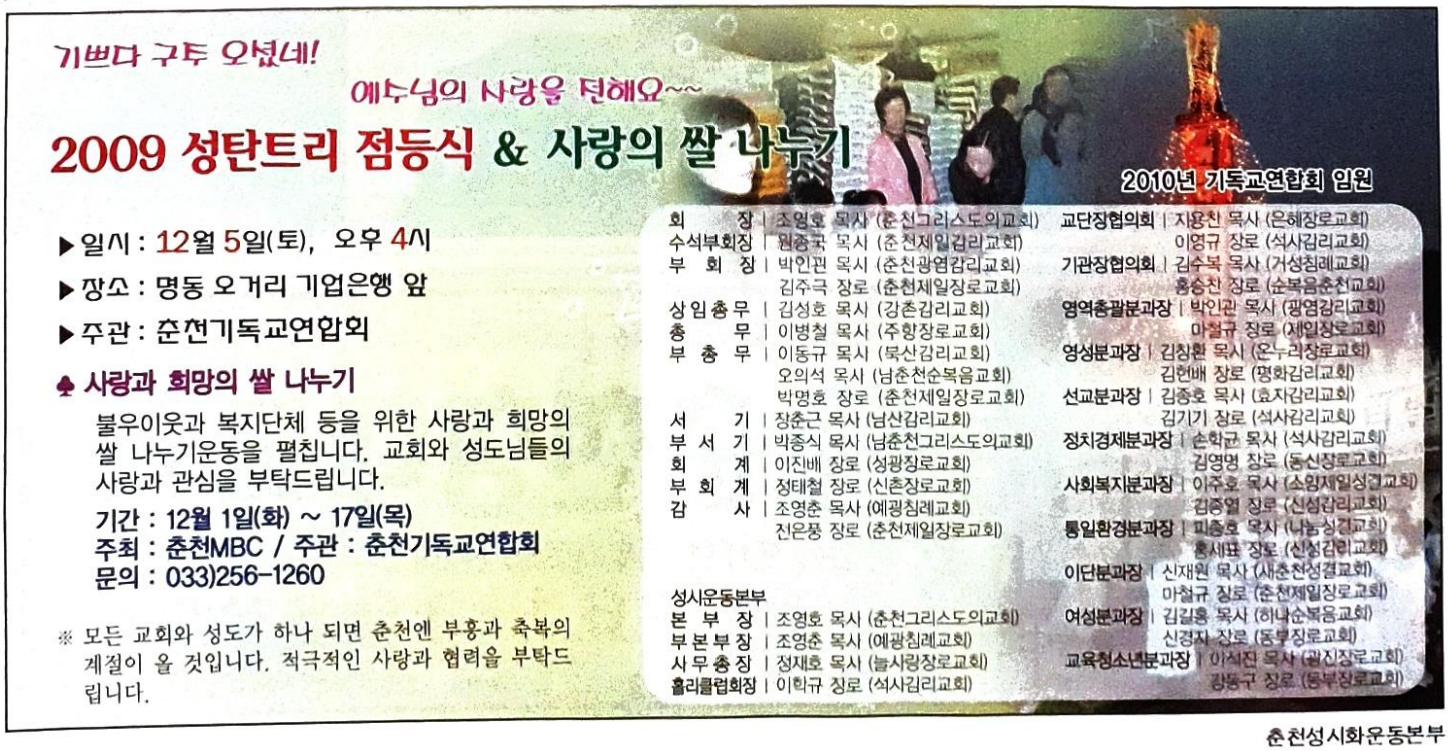
인도 비하르의 이영길 선교사와 함께 11월 2일 인도의 최하층 천민인 달릿(Dalit · 불가촉천민)의 권리 옹호를 추구하는 정당인 인도정의당의 창당 대표 우딧 라지(Udit Raj)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우딧 라지 대표는 춘천에 와서 춘천광염교회를 방문, 춘천의 목회자들과의 인도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원장:안동규)를 방문하여 한국의 지방분권운동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사례를 청취한 후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원주 신림의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 김범일 교장과의 환담 및 가나인 비전을 통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협력에 대한 협의를 나누는 등 뜻 깊은 우의를 다졌다.

한편 인도의 달릿층은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해 인도정의당이 창당되어 다각적인 복지와 인도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익정치단체이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 오찬 간담회

11월 17일 오전 12시 부산성시화 대회를 위한 성시간담회가 부산 해운대 그레이스호텔 컨벤션홀에서 있었다. 전국 11개 도시의 본부장과 사무총장 및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도시 성시화운동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누는 등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부산 본부장 최홍준 대표의 주재로 각 도시 본부장 임시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성시화 운동의 건강한 발전과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간의 통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성시화운동의 실질적인 연합이 필요하며, 지난 2004년 포항에서 있었던 세계대회의 후속 대회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함께 모든 도시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성시화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합의된 연합체 결성을 위하여 더 많은 도시의 성시화 대표들의 모임이 필요하며, 추후 세계대회의 개최를 위해서도 서로간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이에 이를 위한 추후 모임을 대전시에서 가질 것을 기약하고 추진 위원장으로 최홍준 대표를 선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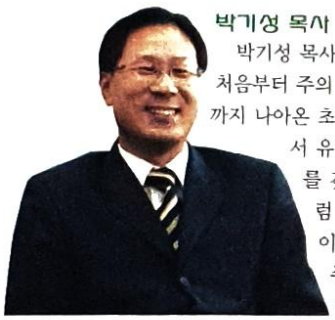




주님의 부요함이 머무는 교회

창대교회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을 비전으로 1991년 설립되었다. 드보라처럼 4/5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위대한 사역을 펼쳤던 김명분 목사의 은퇴 후 교회는 더욱 부흥하기 시작한다. 전임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까. 다윗왕의 준비 작업 후 순탄하게 이루어진 솔로몬의 성전건축처럼 2007년에 부임한 박기성 목사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고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창대교회의 은혜로운 소식을 함께 나눠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창대교회(박기성 목사)편입니다



박기성 목사

박기성 목사는 전북 익산이 고향이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처음부터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아온 초지일관의 목사이다. 박 목사의 신앙은 모친에게서 유전한 바가 크다. 모친은 출가 후 5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다. 이때부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모친의 피 끓는 기도와 서원을 통해 태어난 것이 박 목사이다. 그래서 그런지 박 목사는 그동안 주의 길을 걷는데 조금도 흔들리거나 주저함이 없었다. 신성감리교회에서 부담임목사로 사역할 때도 10년을 한 결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 사람들이 박 목사를 사무엘을 닮은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싶다.

세상의 빛인 거룩한 교회

박기성 목사는 요즘의 시대정신이 보이는 '겉' 모습에 민감한 것에 비판적이다. '겉' 모습에 민감한 만큼 보이지 않는 '속'에 대하여는 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의 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손 씻음'은 엄격한 율례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비난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마가 7:15-16)"면서, "사람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 창대교회는 전임자였던 김명분 목사의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박기성 목사의 부임 이후 입구에 아름답게 조각된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이 창대교회의 생활화 신앙을 말해주고 있다. 박 목사는 "신앙이란 반드시 생활화되어야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사회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교회, 세상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매일 첫 새벽에 열리는 기도회는 말씀을 듣고 삶에 깊이 있게 적용하는 큐티중심, 적용중심의 기도회로서 곤고한 지체들이 아침마다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새벽시간으로 각인되어 있다.

창대아라

창대교회는 지난 2008년 10월에 새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박 목사의 비전에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응답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한 것이 1년여의 공기를 거쳐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근 봉헌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웅장한 모습이다. 성전내부는 노아방주를 모델로 하였다. 인류를 구원한 노아처럼 춘천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열방을 구원하는 사역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소원이 묻어 있는 예배와 기도의 전당이다. 정춘희 사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박기성 목사, 그리고 동역자 김인배 한명수 홍정화 원로장로, 강철주 김길수 김완규 김준규 이정희 시무장로와 창대교회 성도들. 말씀처럼 더욱 창대해 가서 주님의 부요함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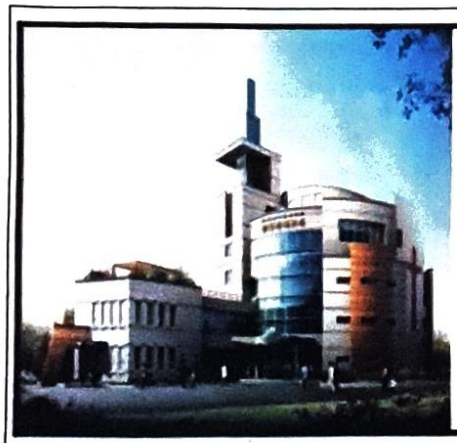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3-16)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닮게하는 교회

춘천창대교회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855 (현대성우오스타 정문앞)

☎ 261-3959

◈ 담임목사 / 박기성

◈ 원로장로 / 김인배 한명수 홍정화 ◈ 시무장로 / 강철주 김길수 김완규 김준규 이정희

| 영혼의 양식

한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시편 100:1-5)



윤정호 목사
(순복음생명샘교회)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이면 인간은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후회도하고 반성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한해의 마지막 12월엔 더욱 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후회스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9년 한해를 지내는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해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사역으로 인해 성도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고(시편121:4),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요10:28,29) 하나님의 실신하신 이름으로 지켜주시고(요17:12)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신32:10)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사26: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한 해 동안 고비 고비 때마다 넘쳤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한해를 능히 견디어 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눈을 딴 곳으로 돌리신다면 이 세상은 무법 무질서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 성도는 한해를 마감하는 때에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 처해 있다는 현실이 모순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성도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가난과 환난 핍박도 있을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이 때로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극심한 고난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관하신다는 사실! 성도를 고난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도의 고난 중에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한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고 새해에 세운 목표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것을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과 목표한 것을 마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 그 끝은 아름답게 맺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의 성도여러분, 한해를 돌아보면 많은 상념에 젖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린 성도의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겪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을 당하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고 승리를 소망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2010년 새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춘천의 모든 성도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 하시기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색의 창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강순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원/
춘천동원교회 집사)

하루 평균 2.7명, 평균연령 9.4세, 2008년 한 해 1,220건 TV 공익광고를 통해 한번쯤은 들었을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실태입니다. 대부분의 사건과 충격들이 오랜 동안 기억에 남아 힘들게 하지만 무엇보다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들의 후유증은 심각해서 학교생활, 가족관계, 대인관계의 곤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예방은 물론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춘천시 효지동에 문을 열게 되었고, 이제 겨우 4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이 4년처럼 느껴지는 것은 육체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심하게 다친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처절한 심정이 그리고 어른 된 이의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켜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외과의사의 수술용 메스로 도려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탄처럼 내뱉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나 사건에 대한 치료와 처리는 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13세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 아이들의 집 · 놀이터 · 학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로만 위험한 곳에 가지마라 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아이가 오가는 거리를 둘러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境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동의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요청을 무조건 거절하라"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황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시키십시오. 그림 많은 동화책을 활용하여 수시로 느낌을 물어보고 나쁠 때는 꼭 얘기하도록 가르칩니다.

[문의 상담 : gwchildsaver@hanmail.net, 252-1375]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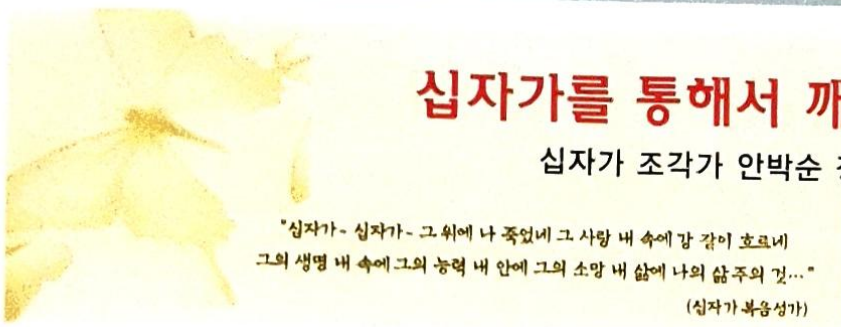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운연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사랑

십자가 조각가 안박순 장로(성암교회) 편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 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복음성가)





2009년 5월 18일 국민일보에 소개된 십자가를 깎는 장로가 바로 춘천에 있다. 성암교회를 43년간 섬기고 있는 안박순 장로(67세)이다. 매서운 바람이 한풀 가라앉은 따스한 11월의 한 날, 안박순 장로의 십자가 작업실을 방문했다. 작업실이래야 특별할 것 없는 아기자기한 집 마당에 세워진 소박한 원두막과 집안 구석구석이 온통 작업실이다. 기온이 따뜻할 때는 집 마당에 있는 원두막에서, 날이 추워지면 집안 거실에서 십자가를 깎는 일에 몰두한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온 종일 십자가 깎는 일이 삶의 전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국민일보에 사연이 나간 후로는 더욱 바빠졌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통에 많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한다.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사연을 물었다. 안박순 장로가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참 재미있었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 선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맞선을 보았던 처자가 안 장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싫다며 딱지를 놓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스스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의 성암교회다. 교회에 가보니 벌써 그 처자는 사귀는 사람이 있었단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설교 말씀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 그 이후로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 당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부모님과 형님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 5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부모님도 신앙을 갖게 되고 형님네 아들도 신학을 하게 되어 목회자를 배출하는 믿음의 집안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라울 따름이다. 한 빈의 중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그 첫 발걸음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안 장로가 이렇게 십자가를 깎는 일에 몰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속네가 궁금했다.

2005년도 한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가운데 안 장로는 경기도 양주시 일영의 감리교 연수원에서 열린 영성 프로그램 '엠마오 가는 길' 1기를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정신을 깨달았다.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썩은 소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보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장로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통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수고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일찍이(40세에 장로로 피택 됨) 장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내 주장만을 하고 살았구나! 하고 큰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이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의 썩은 관솔을 보고 저 나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십자가를 깎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저렇게 죽고 쓸데없이 버려진 나무 같은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답게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 담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썩어서 죽어버린 나무토막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쓰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고 안 장로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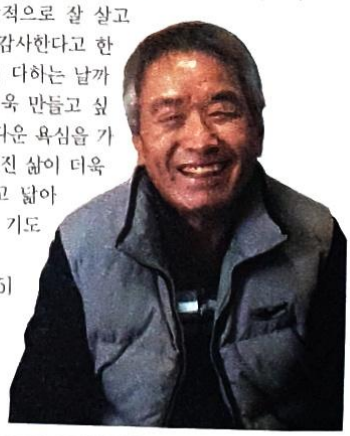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만들다 보면 밥 때를 놓쳐도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배고픈 줄도 모른다. 아무렇게나 생긴 못생긴 나무가 갈라지고 낑데기가 벗겨지고 다듬어지고 삶고 건조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된다. 마치 인간이 가진 세상 욕망의 때 묻은 낑데기를 벗겨내고 내 안의 죄 된 욕심이 십자가의 피로 씻기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듯이 말이다. 구부러진 나무, 썩어서 속이 빈 나무, 버려져 가치 없는 나무가 안 장로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십자가가 되어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는 무가치한 죄인으로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처음에 나무를 주워 모으는 일이 어려웠는데 많은 사람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버려진 나무를 가져다준다. 소나무, 향나무, 노간주나무, 주목, 다름나무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버려진 나무를 깎아 십자가를 만들어 처음 성암교회에 세워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했다. 아무렇게나 생긴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니까 뭔지 모를 새로운 감동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식으로 화려한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너무 화려한 것은 십자가의 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집니다." 안 장로가 말하는 십자가의 정신이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춘다.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증언하고 자랑해야 한다. 분명해야 한다. 요즘은 안 장로의 집에는 전국적으로 견학 오는 사람들이 있다. 우편으로 십자가를 주문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고 감동한다.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사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단호히 거절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도 사례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성암교회가 운영하는 '영혼의 양곡'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보내는 운동)에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내 윤옥자 권사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자녀 모두가 장성해서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 앞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만을 더욱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아름다운 욕심을 가진 안 장로의 남기진 삶이 더욱 십자가를 자랑하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문의: 263-1425]



취재 유병준,
사진 김미경

Dreaming Mission Language Training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기본 1단계 14기)

"'영어가 너무나 어렵다' 에서 '이렇게 쉬운 것이었구나' 라는 역발상적인 영어의 변화가 일어났다"
- 영인 아빠 -

미라클 체험수기

단 3개월 훈련으로 영어걱정 안하는 현민이 이야기
'현민이가 초등학교를 졸업 할 때 평창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때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의 영어공부 때문에 고민하던 중 미라클훈련을 받은 지인을 통해 미라클을 소개 받게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과 과외를 했다는데 우리아이는 시골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서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2개월만 지나면중학교 입학인데 영어준비가 전혀 안되어있었어요. 공개설명을 듣는 중 비로 저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선택이 적중했구요. 학원아니 과외를 전혀 받지 않은 아이가 미라클 훈련을 딱 3개월 받고 나서 영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 하더라구요. 미라클식으로 하니 학교영어뿐 아니라 영어가 쉽다는 것을 깨닫 고는 이 방법에 대해 더욱 확신 하더라구요. 물론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어 시교육은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영어는 교과서의 문장이아닌 곳에서 문제가 나와도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탄에시 최상위권의 상력을 유지해요. 영어 때문에 여기 저기 기웃거리거나 시행착오로 시간 낭비하지않고 곧바로 훈련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 김현민(남아중 3년) 엄마 -

졸면서 듣는데도 진짜 신기하다. 영어가 2번만 읽으면..마치 멜심히 달달달 외운 듯 저절로 나온다.
이곳은 이상하다. 졸면서 졸았는데도 5일 정도 되니까 머릿속에 영어 문치가 하나 생긴 느낌이다. 졸면서 들은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그 동안 배운 것들을 응용해 서언제든지 써내 쓸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때 나는 한어떤 하고도 영어를 해 보고 싶게 외워도 보는데 잘 안 되었지만 미라클은 진짜 신기하게 옥사님이 시키는 대로 영어 2번만 읽으면 마치 멜심히 달달달 외운 듯 저절로 나온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영어로 말도 하게 된다. 그래서 미라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무리 해봐도 나오지 않던 영어라는 통이 미라클 아직는 초강력 변비약을 먹고 풀리는 것 같다.
-김성훈(우석초 6년) -

"정말 획기적으로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훈련 수료자들의 끊임없는 입소문과 추천이 입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현직 중 ·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초등학생 자기 자녀에게, 동료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적극추천하는 곳이다"
'빈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중 · 고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입식이나 암기식' 이 아닌,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 방법으로 '정확한 훈련' 을 할 때 근본적인 영어(문법, 독해, 회화)가 됩니다.

1. 개강일시 : 2010년 1월 4일(월) 오후 6시30분(시간엄수)
2. 기 간 : 1월 4일(월) ~ 1월 29일(금)
(매주 월,화,목,금 6:40 ~ 10:10P.M. specially training)
1일 3시간 30분씩 1개월 학습 및 훈련
3. 장 소 :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교통편 : 카톨 22번버스)
4. 본훈련소는 :
① 초5 · 6년,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 영어의 근본 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본만 아니라 영어실력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빠른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수 있으므로 초등학생이나 영어에 지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 매우 좋습니다.
③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확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5. 훈련등록마감 : 12월 22일(화)까지 선착순 마감 ※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262-9105구윤영어, 264-0691, 010-3510-0691)
6. 공개 설명회 및 체험사례발표 : 1차(12월 5일(토)) / 2차(12월 12일(토)) / 3차(12월 19일(토)) 오후5시 ~ 6시30분. ※시간엄수 요망

※※ 훈련생 자격 : ① 기독교 신앙인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의 소유자.
② 반드시 3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초, 중고생을 위한 방학 2개월(32일) 완성
'미라클 영어 특별 훈련'
1월 5일(월)부터 매주 월~금
오전 9시 ~ 12시 30분

인터넷 다음까페(http://cafe.daum.net/dmll)에 더 많은 '미라클 체험수기' 가 있습니다.

춘천의 숨은 이야기(II)

이스라엘에 마사다(Masada)가 있다면 춘천엔 봉의산(鳳儀山)이 있다



김 동 정
관동대 사학과 겸임 교수/
강원 도사편 찬실 상임위원/
신성 감리교 회 권사



'이스라엘' 하면 '선민의식' 과 함께 이 나라를 상징하는 많은 사건과 용어들이 뇌리 속에 간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용어는 '마사다' 일 것이다. 너무나 애절한 절규가 지금까지도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메아리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춘천에도 이와 유사한 애절함과 절의(節義) 그리고 비장한 결의를 엿볼 수 있는 우리 선조의 절규가 서려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봉의산' 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마사다에 얽힌 이야기와 춘천 심장부에 우뚝 솟아 춘천의 항쟁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봉의산에서의 선조들의 절규를 들어보며, 우리도 '봉의산' 을 이스라엘의 '마사다' 로 여겨봄이 어떨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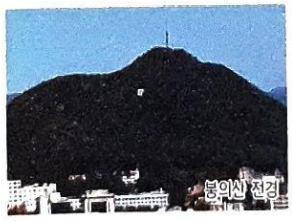

마사다 전경

이스라엘의 성지 마사다는 사해 수면보다 높이가 약 410m 높은 지역에 길이 약 600m, 폭이 약 250m의 마름모꼴의 천연요새로 고립되어 우뚝 솟아 있다. 또한 사면이 가파른 절벽의 경사로 둘러싸여 있어 정상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지이다.

마사다(Masada)는 본래 히브리어로 '산의 성'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켜 5년이나 반란이 지속되자 70년 8월 로마의 티투스(Titus)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때 엘리아살 벤 야일(Eleazar ben Yair)이 거느린 유다의 열혈단이 마사다로 진격해 가서 로마 수비대를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고 대로마항쟁을 결의하며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 72년에 로마의 실바(Silva)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 1만 5천명(로마군 9천명과 유대인 포로 6천명)에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천명도 채 못 되는 수비대는 거의 2년을 버텼으나, 73년 4월 요새로 올라오는 경사로를 만들어 진격해온 로마군에 함락되었다. 함락되기 바로 전날 저녁, 유대인지도자 벤 야일은 960여명의 유대인 열심당원을 모아놓고 "로마인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영광스런 죽음을 택하자"고 설득하였다. 그들은 죽기로 결심하고 남자들에게 가족 중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전부 끊게 하고 열 사람씩 조를 짜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한 사람이 아홉 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죽음의 의식을 반복해서 치렀다. 최후의 한 사람은 전원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식량을 제외한 모두에 불을 지른 후 자결하였다.

다음날, 성에 진격한 로마군은 타다 남은 재속에 놓여 있는 960여 구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하도에 숨어 있던 두 명의 여인, 그러니까 일곱 사람뿐이었다. 이들이 당시 상황을 증언함으로써 마사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오늘의 마사다는 유대인들이 힘이 약해서 죽음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의 젊은 병사들에게 애국 애족의 강인한 이스라엘 특유의 항전 불패의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도장으로써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지막 훈련과정에서 군대의식을 행할 때에 **"마사다는 이제 두 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는 구호를 선언하고 있다.


봉의산 전경

춘천의 상징이자 진산인 봉의산은 높이가 301.5m이다. **상서로운 봉황(鳳凰)이 나래를 펴고 위의(威儀)를 갖춘 모습**이라 하여 봉의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상부에는 봉수대가 있고 8부 능선에 산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하여 축성한 봉의산성(강원기념물 제26)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축성하였으며 크기는 길이 1,241.5m, 높이 5~6m이다. 봉의산은 남쪽에 진병산, 서남쪽에 삼악산, 서북쪽에 화악산, 북쪽에 용화산 그리고 동쪽에 대룡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뒤편으로 소양강을 흘러 보내고 화천 쪽의 북한강 물을 받아 의암호수를 이루면서 우두평야의 곡창지대를 거느리고 있다.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봉의산은 고려시대부터 외적(外敵)의 잦은 침입으로 격전장이 되었고 봉의산성은 끝까지 사투하는 항전장(抗戰場)이 되었다. 고려 고종 4년(1217) 음력 5월에 거란의 침입으로 당시 안찰사(按察使)였던 노주한(魯周翰)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고 봉의산성의 함락으로 봉의산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 후 38년이 지나 몽골군과 유례없는 혈전을 벌인다. 몽골의 4차 야굴군(也窟軍)의 침입(몽골은 모두 7차례 고려 침입) 때에, 춘천 주민들은 봉의산성에 들어가 항전하였으나 포위가 오래 지속되어 산성의 물이 말라 주민들은 우마(牛馬)를 잡아 그 피를 마시고 연명을 하며 버티었다. 우마의 피 마시기도 한계가 있어 도저히 버티기 힘들게 되자, 당시 문학(文學) 벼슬에 있던 조효립(曺孝立)은 자기의 처를 단칼에 베고 적진의 불 속에 뛰어들어 산화하였고, 또 안찰사(按察使)인 박천기(朴天器)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몽골군이 포위하고 쌓아 놓은 목책(木柵)을 부수면서 싸워보았지만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에 성 안에 있던 주민들도 항전하다가 대부분 죽임을 당하였다.


봉의산성

이후에도 봉의산은 왜구의 출몰을 막는 기지였고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에도 방어 내지는 군사를 정비하는 기지였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임시 수도격인 유수부(留守府)가 설치되어 임금이 피난하여 정사를 보는 이궁(離宮)이 봉의산 아래에 세워지기도 하였으며, 의병봉기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성채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오늘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말없이 춘천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봉의산은 이민족(異民族)의 침략에 결사항전(決死抗戰)하던 의미 있는 산이다. 이스라엘이 '마사다' 를 성지(聖地)로 여기며 민족적 결의를 다지고 군인정신의 도장으로 여길 때, 우리는 봉의산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내 고을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전하던 우리 선조들의 곧은 절의(節義)와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늘 봉의산을 바라볼 때마다!

훈련생체험수기중에서

국민일보 2008년 12월 16일 뉴스(사회면)에서.
"4개월의 집중훈련으로 입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게 만드는 영강사기 춘천에서 요즘 인기다. 최 목사는 토종 영어 교수법 전문기다. 춘천 회천 흥천 원주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부산에서도 올라왔다. 4개월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은 '중고교 때 진작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영어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는 감탄과 고마움의 글을 남겼다. 미국 대학 경영학 교수로 있다 은퇴했다는 김모(66)씨는 '비영어권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고민해왔는데 이곳에 해답이 있었다'며 최 목사의 교수법에 놀라워했다."

영어가 최상위권으로_ 외국에서 살다 왔니고 믈어볼 정도_ 다른 공부에 집중력할 수 있는 능력도 훈련_
이라를을 배우고 닌후, 영어시간에 지신감이 생겼다. 영어시간에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원어민 선생님도 더 친근해져서 영어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 학교 친구들이 외국에서 살다 왔니고 물어볼 정도로 늘었다. 독해와 문법은 물론이고 귀도 입도 트이는 것을 느꼈고 덕분에 영어가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영어뿐만 이니라 다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훈련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좋다. 미라클은 한마디로 영어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실감나게 해 주는 곳이다.
-여○○(봉의여중 1년)-

이렇게 단기간에 문법을 전체적으로 끝내고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은 이곳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숙명여대에서 테솔과정과 해외어학연수 등 상당히 오랫동안 영어공부에 피 묻혀 살았고, 나 역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미라클은 기존의 영어교육 system 과는 근본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영어의 문법이나 표현을 익히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근본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문법을 정확적으로 한 눈에 정리할 수 있었다. 영어공부를 하는 데 3개월은 법대로 긴 시간이 아닌데 이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영어의 틀을 섬이 올려 주시는데 대한 기초인 어휘들을 최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식만 하면 4개월 후면 영어라는 견고한 탑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Miracle이적입니다!"
-박윤주(해솔교사, 숙명여대 테솔과정, 해외어학연수)-

영어의 눈이 새롭게 열려_ 기존 영어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것
저는 '4개월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온다' 라이 말씀하시는 아빠의 권유로 미라클영어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어가 술술~~!' 이것은 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10년 이상 영어공부를 해도 이수준인데 4개월 만에 가능할까' 의심이 생겼지만 일곡 공개설명회를 참석하고 체험자들의 체험담과 영어방법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들고 나서야 겨우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한 지 며칠이 지나지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니, 2개월 만에 '이 미라클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치 백들을 하나하나 쌓이 올려서 높고 큰 탑을 완성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백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탑을 쌓는 쉽고 빠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므로 알아듣지 배운 것을 비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응용하여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백들을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무작위의 백들들만 주고 "탑은 본인이 알아서 쌓는 것입니다" 하고 마는 기존 영어교육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해을 들지면 저는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어학연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국내에서 영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전에 일주일에 두번 일대일 영어회화를 받았고 저녁에는 미라클 영어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교기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호주에서 7년 계실던 분이라 영어실력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회화 문장 전체와 뜻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기 그것을 사용하려면 문장을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문장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몰랐으므로 응용시켜 내기 하고 싶은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선명히 쉽게 설명하면서 문장을 이끌어 내시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문장을 임들게 와울 필요기 없이 스스로 영어든지 응용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집중하여 듣기만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실제로 상당수의 5·6학년 중·고생들도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더 비싼 돈을 내며 영어과외를 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효과가 있는 미라클 훈련을 전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홈보사를 보며 설마 설마 하던 것이 정말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내기 스스로 생각해내며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돌아서 기족하리서 사용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일단 외국인이 있는데 미라클을 시작한 지 일이 안 되었을 때 내게 "내기 전보다 훨씬 더 너의 말을 잘이해 할 수 있다. 영어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쉽게 영어의 탑을 쌓이 올려 주시는데 탑의 기초인 어휘들을 최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식만 하면 4개월 후면 영어라는 견고한 탑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Miracle이적입니다!
-고우래(강대 영어영문과 1년 휴학중)-

지금은 영어성경, 영어에배, 외국학생과 대화_ '설마 짧은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있겠어?' 하고 무시하다가~
여러 차례에 걸친 인터넷 수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설마 짧은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있겠어?' 무시하다가 2008년 말경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에 관하여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참석하여 4개월간의 학습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단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영어성경을 보고 있고, 영어예배에 참석하며 미숙하지만 외국인 학생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회화 실력이 향상되었다. 총· 고등학교 6년 동안을 배우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문법 및 독해를 30년이 지나 5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4개월간의 미라클 훈련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인과 대화, 영어회화하는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송재성(50대/순복음은천교회-

예수 안에서 본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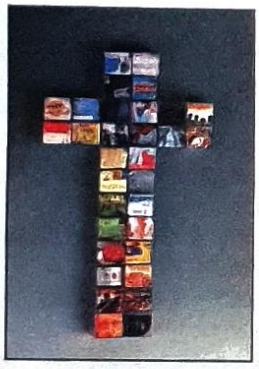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 13회 강원기독교미술인 협회展



김명숙 / 영혼의 정원-休



김춘배 / 갈대상자



이관형 / ICON-2009



정영희 / 붕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강원기독교미술인 협회전은 '생명' 이라는 주제로 서양화가 김광남 김명숙, 한국화가 유홍옥 배종숙, 서예 황재국 김분호 조소 이운식 이성재 등 모두 30명의 작가들이 서양화, 한국화, 조소, 서예 등 작품 60여 점을 전시한다.

협회 회장인 김명숙 작가(영혼의 정원-休)는 명상의 시간을 천을 이용한 바느질로 엮어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자아의 존재에 관한 반향을 체험, 가진 것에 감사하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따뜻한 촉감으로 나타냈다.

본지 편집위원인 김춘배 작가는 '갈대상자' 란 제목으로 애굽의 파라오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한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출2:5)를 갈대밭 강가의 이미지와 함께 표현하였으며,

정영희 작가는 '붕어'란 제목으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와 다름없이 사랑하심을 표현하였다.

본지 만평을 그리는 이관형 작가는 'ICON-2009'는 제목으로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데 에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을 캔버스와 물감대신 주변의 여러 상황과 시간이 담긴 광고지 등의 재료를 가지고 투명 아크릴박스 안에 넣어 십자가 모양으로 작업한 역동적인 실험작을 선보였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제 13회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

* 기 간 : 2009. 12. 18(금) ~ 12. 24(목)
* 장 소 : 춘천미술관(구, 옥천동 중앙감리교회)
* 주 최 : 강원도 기독교미술인협회

(※ 기독미술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총무 정영희 010-7707-2225)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24



비염은 꼭 관리해야 한다!



고 석 연
(가정의학과)

미국의 경우 전체 성인인구의 10~30%가 비염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45%나 비염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비염은 참 흔한 질병이다. "비염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다." 라는 말을 의대 재학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난다. 현대 의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질병중의 하나가 바로 '비염' 이다.

확실한 비염 치료제가 없다보니 여기저기 비염에 좋다는 사이비 약들이 많다. 가끔 월간지나 신문에 보면 비염에 대한 특효약이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 참 우습다. 광고가 사실이라면 아마 노벨의학상감 일텐데 그 어느 누구도 비염으로 노벨의학상을 받았거나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모두 다 허위과장광고이다.

물론 민간요법이 모두 거짓은 아니다. 생리식염수(소금물)로 코를 세척하는 것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 2009년 11월 미국가정의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에 실렸다. 또한 마황에는 에페드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감초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마황과 감초를 같이 다려 먹으면 얼마든지 비염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만 비염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에페드린이란 성분은 마황 이외에도 여러 허브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데 과량 복용 시에 두통 불안 불면 심계항진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물론 스테로이드 성분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인체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현대의학에서는 에페드린이나 스테로이드 성분은 비염 치료 시 경구 약으로 3주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경구약 사용 자체를 금하고 있다.

비염은 외부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코가 가렵고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콧속이 부어서 코가 막힌다. 그런데, 이런 증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비염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학습장애와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만성피로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염은 꼭 치료해야 하는 병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

그러나 비염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다. 하루에 한두 번만 먹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도 많이 있고, 하루에 한두 번만 코에 뿌리면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점비제도 시중에 나와 있다. 물론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가 필요하다. 문제는 약을 장기간 사용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지만 항히스타민 경구제나 스테로이드 점비제는 장기사용 시에도 우리 몸에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류코트리엔 억제제란 약도 나왔다.

최근에 진료한 20대 청년은 오랫동안 비염을 앓아 왔는데도 비염에 대해서 전혀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 봤지만 약 먹을 때만 조금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니 비염을 치료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했다.

그 청년의 말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비염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질병이다. 비염을 관리하면 이미지가 깨끗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피로도 느끼지 않는다. 학업과 일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염을 방치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 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다고 죄에 우리 몸과 영혼을 내어 줄 순 없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오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올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늘 피동적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사회나 교회가 절기를 주도했고 우리는 스스로 별 생각 없이 끌려가던 삶이 아니었는가? 이제는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듯하다.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큰 축제로 알고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그런 분위기가 아쉬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몫이 된 듯싶다. 성도들이 이 복된 절기의 주도권을 가져야할 때이고, 우리에게 맞는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강절 독일시장의 모습과 예수탄생의 크립페

언젠가 독일에 사는 친구에게 독일 사람들의 성탄절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나서 메일로 그 소식을 부탁했다. "그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지?" 이 글은 친구인 김성근 목사(독일, 딩골핑에 거주)가 메일로 보낸 글이다.

성탄절 절기는 실은 대강절(Advent; 대림절 또는 강림절)부터 시작된다. 이 대강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한데, 성탄절 앞의 네 주간을 가리키는 교회절기이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미래에 닥칠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기다림의 정점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는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절기이고 축제이다.

대강절이 시작되면 여기저기 눈에 띄게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도시나 마을마다 서는 성탄절 시장이 내게는 제일 이채롭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기 위한 다양한 천사들, 창문에 걸어두고 촛불을 밝힐 수 있는 유리 장식품, 또는 나무로 된 장난감이나 여러 모양의 장식품들, 탁자용 보자기, 냄비 받침대 등등 오만가지가 다 있다. 그 시장 한 구석에는 가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굿간 모형(크립페)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복잡한 시장통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생각하게 될까? 잉골슈타트에서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당 안에 크립페를 전시해서 "크립페 순례"도 할 수 있다. 그 크립페들은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닌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성탄절 시장은 열리는 곳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지만 유명한 곳은 '뉘른베르그' 일 것이다. 그 규모나 유명세 때문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 언젠가 나도 그곳에 갔다가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야말로 앞사람 뒷머리만 따라다니다 온 적도 있다. 그런 복잡한 시장을 피하고 싶으면 '로텐베르그' 의 성탄절 시장을 구경하면 좋을 것이다. 비록 전쟁 중에 많이 파괴되어 복구된 도시지만 아직도 중세풍을 간직한 곳이다. 이곳은 시내 전체가 예쁘게 장식되어서 거기에 놓인 성탄절 시장도 더 멋진 분위기를 낸다.

그렇게 거리만이 아니라 집안도 대강절이 되면 서서히 장식을 하게 된다. 아내도 매일 바쁘다고 하면서도 이때만 되면 장식품들을 꺼내놓고 보통은 하루 만에 이곳저곳을 예쁘게 꾸며 놓는다. 대강절 달력도 걸고, 대강절 화관도 있다. 이 화관은 초록색 전나무 가지로 둥글게 만들어 거기에 붉은색, 흰색 등의 띠를 두르고 초 네 개를 꽂아서 만든다. 대강절이 한 주씩 다가올 때마다 그 초를 하나씩 밝히게 된다. 이 대강절 화관은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모든 교회에서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도 먹는 것은 빠지지 않는 듯싶다.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모양과 내용물을 달리한 작은 과자 플랫츠켄을 굽는데, 성탄절 특별 먹거리가 되는 셈이다. 그 사이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 선물도 사야한다. 그렇게 바쁘게 대강절을 보내게 된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면 이곳은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 성탄절은 철저하게 가족중심의 축제이기 때문이리라.

그동안 우리의 성탄문화는 교회 중심이었다. 지금의 어른 세대 중에서 성탄절에 교회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도 성탄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가정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고 가정 중심의 성탄 문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단지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이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친구는 독일의 성탄절이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 축제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성탄절의 중심은 오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를 담아서 대강절을 보내기(위에 소개한 내용), 성탄 장식하기, 복음을 담은 성탄 카드로 인사하기, 성탄에 관계된 성경 암송이나 성경퀴즈, 성탄 영화나 연극 등등.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참여한다면 의미 있는 절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회와 같은 외부에서 만들어 주는 분위기를 따라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성탄절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편집위원 고 재 만

예 향

한나의 승부수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삼상 1:11) 자식 콤플렉스가 있는 한나가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진다. 한나는 그러한 콤플렉스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만 있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승부수를 던다. 그래서 한나의 승부수를 띄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주셨던 것이다. 약점을 가지고 콤플렉스로 발전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의 인생은 성공이다.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성탄절의 주인공은?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기독차(茶) 문화 - 다(茶) 도(陶) 락(樂) 연수원 개원

〈다(茶) 도(陶) 락(樂)〉 연수원
하나님께서 가꾸신 신선한 차와, -茶
주님 주신 아름다운 지구의 좋은 흙으로 빚어 구운 도자기와, -陶
즐겁고 감사한 찬양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樂

♠ 개원예배 : 12월 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춘천시 퇴계동 916-1, 현진아파트상가 204호
♠ 개설강좌 :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일반부
※ 일반부는 초급반, 중급반, 지도자반으로 구분하여 교육 후, 기독교 페백 지도사 자격증 수여.
♠ 문 의 : 원장 민성숙 033)256-7979, 010-3045-5469

♠ 연수원 개원
예배, 기독 차 문화의 회복
강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절과 요의 회복
자격, 결혼예식 페백을 기독교 문화로 회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추운 겨울, 따뜻한 사랑으로 추위를 녹여요~



추운겨울이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성육신의 절기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여기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이웃사랑과 아름다운 나눔 행사가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일에 함께 동참해보면 어떨까?

연탄은 생명이다!

정 해 창 목사
(제자감리교회, 춘천연탄은행대표)

가끔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사랑의 충고를 받을 때가 있다. "정 목사! 꼭 연탄으로 선교해야 돼? 목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미래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연탄배달하면서 목회할거야!"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가슴이 저려서 말을 못하곤 한다.

지난 6년 동안 70만장 연탄을 나누면서 가슴에 새겨진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연탄은 생명이다'는 사실이다. 옛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춥고 배고픈〉 백성들이 없도록 하는 일이었다. 목민관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도 〈춥고 배고픈〉 민중이 없도록 돌보는 일이다. 〈춥고 배고픈〉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고픈 것보다 더 서럽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추운 것이다. 추운 겨울 냉방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지내본 적 있는가? 배고픈 것은 며칠 견딜 수 있지만 추우면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죽하면 연탄 한 장 아끼려고 목숨 아끼듯 영하 20도 넘는 추운 날에도 연탄구멍 꼭꼭 막고 아껴서 때겠는가? 연탄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연탄 사랑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이다. 연탄을 들고 차가운 거리를 나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메시야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연탄천사가 되어 연탄을 통해 메시야의 사랑과 강림을 전하고 싶다. 올해는 연탄 값도 30%나 인상되고 대상가정도 1,000여 가정으로 늘어나서 연탄지원 목표량 30만장을 제때에 잘 공급할 수 있을까 조금은 우려가 된다. 그러나 이 땅에 연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처럼 연탄이 필요한 곳이라면 깊고 낮은 어둔 곳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높은 산꼭대기도, 좁고 긴 언덕길도 연탄에 사랑을 실고 복음을 담아 전하고 싶다. 나에게 연탄은 성경이며, 찬송이며, 복음이며, 선교이며, 목회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만난 가장 행복한 얼굴은 연탄사랑을 통해서 만난 얼굴이다. 새까만 연탄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은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다. 어둔 쪽방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앙상한 손을 붙잡고, 사랑의 눈물 흘리는 연탄지기의 마음은 가을 햇살에 빛나는 붉은 단풍보다 더 아름답다. 우리가 전하는 연탄 한 장 한 장은 그냥 연탄이 아니라 코흘리개 어린아이에서부터 역전에서 노점하시는 어르신들의 눈물어린 사랑과 정성으로 빚어진 보석 같은 연탄이다. 이 검은 진주 같은 연탄을 30만장이나 전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다 설렌다. 연탄은 타고 나면 하얀 재만 남지만 연탄에 담긴 그 사랑은 영원하다. 연탄 한 장에 사랑을 담아 전하기 소망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문의: 춘천연탄은행 ☎ 251-7141]

이웃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





구세군 서울지방 강원지역회(지역관 이재우 사관)는 12월 4일 오전 11시 춘천시 명동입구에서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지역마다 모금 시작일은 다르지만 전국 76개 지역 약 230여 곳에서 40억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마감은 12월 24일 자정이다. 춘천에는 명동 입구, 명동 버거킹 앞, 춘천 이마트에 자선냄비가 걸리게 되며 올해 모금 목표액은 2,000만원이다. 또한 구세군은 12월 동안 9개 주요 은행(국민, 농협, 서울, 신한, 우리, 우체국, 외환, 제일, 조흥) 전국지점에서 '월 2,000원의 사랑' 자동이체 모금 캠페인도 벌인다. 모금 된 성금은 영세민 구호, 사회사업시설에 대한 원조, 심장병환자 치료 및 의료지원, 각종 이재민 구호, 신체장애우 구호,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해안에 표착(漂着)한 난파선 생존자를 위한 모금에서 한 구세군 여사관의 아이디어로 냄비를 사용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1928년 12월 15일 구세군 한국 사령관이던 스웨덴 선교사 조셉 바아(박준섭)사관이 명동거리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춘천에서는 1937년 구세군 춘천교회가 시작된 이래 해방 전후의 격변기와 한국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잠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1955년 다시 교회 및 사회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로 55년째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게 되었다.

[문의: 구세군춘천교회 ☎ 261-8008]

온세상 모든 아이들이 목마르지 않는 꿈 "워터플 크리스마스"

waterful christmas





성탄절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탄절은 상업화 되어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월드비전에서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고 지구촌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눔과 축하의 잔치를 12월 한 달간 마련한다.

이 행사는 생수통 성탄 Tree (Waterfull Tree)를 제작하여 기도종이에 기도제목을 적고 후원금을 생수통에 넣어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최인희 집사, 김석균 전도사, 가수 박강성, 시영은, 김장훈, CCM가수 천관웅, 에이멘, 남궁충옥, 장윤영, 소향, 김도현 등이 출연하는 전국투어콘서트도 열린다. 모금된 성금은 아프리카 식수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문화선교의 폭을 넓히고 해외선교의 새로운 영역을 마련하며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워터풀 크리스마스 행사에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문의 : 월드비전 ☎ 254-7244]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미 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버지학교 섬김이(스텝)
(서울중부1기수료)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30>

파이팅 템테이션스 (The Fighting Temptations)



아마 왕년의 영화팬 치고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시스터 액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바람에 조직에게 쫓기는 중에 경찰의 보호로 수녀원으로 숨어든 주인공이 성가대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보수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수녀원의 분위기를 파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 감동적이던 영화이다. 속편도 제작되어 연이은 히트를 쳤다. 말하자면 성가를 주제로 한 카톨릭적인 분위기의 영화인데 이번의 〈파이팅 템테이션스〉는 복음송(Gospel) 성가대를 이끄는 개신교적 내용인 점이 흥미롭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등장인물이 흑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전자는 여성이 후자는 남성이 주인공이다.

'데스티니 차일드' 출신의 톱싱어 비욘세 놀즈와 〈제리 맥과이어〉로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쿠바 구딩 주니어가 주연을 맡은 기독교 코믹 뮤지컬이다.

뉴욕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대린은 머리 좋고, 야심만만한 청년이지만, 고질적인 거짓말로 승진의 기회를 놓치고,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한다. 이 카드에서 저 카드로 돌려 막으며 땜빵인생을 사는 그가 실직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순간, 기적처럼 구원의 손길이 도래했으니, 바로 하나뿐인 혈육인 샐리 이모가 세상을 뜨면서 그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대린은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인 조지아의 작은 마을을 찾지만,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선 마을 교회의 성가대를 복음성가대회에 출전시켜 우승을 해야 한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빚더미에 나앉은 실직자가 도대체 무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대린은 주특기인 거짓말로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 속이고 성가대를 맡아, 함께 할 성가단원들을 모집한다. 성가대에 마땅한 싱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지라 절망한 대린은 상속을 포기할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기적처럼 어린 시절의 친구인 릴리가 나타난다. 미혼모로 혼자 아들을 키우며 클럽의 여가수로 일하고 있는 릴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매춘부라 손가락질 받고 있었다. 그 릴리를 성가대에 들게 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데...

〈나인 야드〉를 만든 조나산 린이 연출한 이 작품은 주인공의 행동거지가 다소 비기독교적이고 감동도 시스터 액트보다 조금 못한 듯한데 미국개봉에서 첫 주에 3위를 기록하며 평론가들에게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노래는 시스터 액트보다 좋다는 반응들이다. 아름다운 복음송이 수놓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라고 치켜세우기도 한다.

아쉬운 점 또 하나는 성가가 흘러나올 때 제대로 된 우리말 번역 자막이 뜨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선율은 그런대로 감동을 주는 것 같다. 특히 Rain Down이라는 가스펠이 심금을 많이 울린다고 한다. 〈2003년 작, 상영시간 12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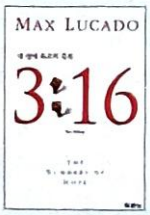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 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 책소개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16 (3:16 The Numbers of Hope)

맥스 루케이도 지음 / 오현미 옮김 / 두란노



크리스마스의 달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약간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요즘 맥스 루케이도에 대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최근 그의 저서 중 〈내 생에 최고의 축복 3:16〉이란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루케이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심조각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아름다움을 엿보게 해준다.

루케이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을 작은 주제로 우리의 하루, 오늘의 삶을 연결해서 해석했다. 그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탄생의 충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언어로 밝혀낸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인간의 축복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깊게 하기 위하여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40일간의 기도를 포함시켜 설명한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할 때마다 루케이도의 시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크게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독자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의미가 있는 우리의 성탄절을 얻기 위하여 이 책을 읽고 사랑과 헌신에 대해 묵상하기를 권한다.

편집위원 조나단 (Jonathan Nimal), 번역 김미경

<후원자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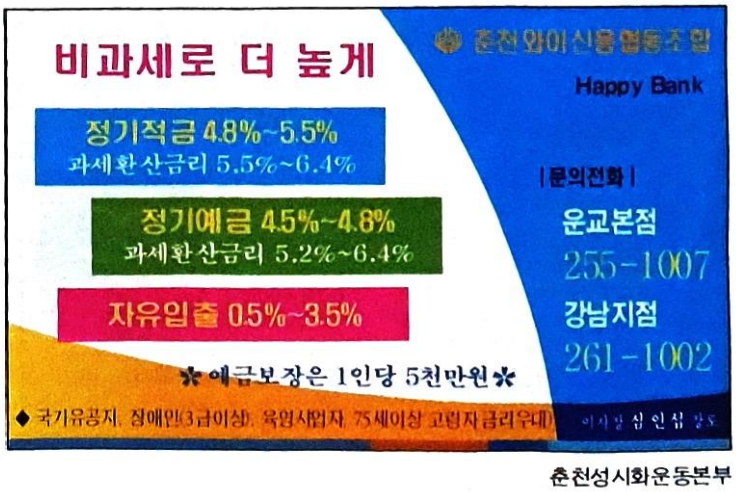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0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부교회	
등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양의문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황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연탄은행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무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춘천홀리클럽		행복지마징기오앙기관	
강신희	강옥자	강진륙	강태랑
고순덕	고순지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리현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봉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영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주환
김진상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자	박종근
박필상	박현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원	오순자
오의석	오흠수	원희정	유김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애자	윤태호
윤흠목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길	이수황
이순자	이영진	이은수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영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지경화	차경자	최계화	최병숙
최상호	최영순	최을용	최예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이	한순수	한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언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택기	황병찬
황은주	황정섭	김영례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

황 영 찬 목사 (춘천한려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1937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영진(71세) 씨는 20세에 공군에 입대했다. 24세에서 42세까지 19년 동안 F-86과 F-5A 전투기를 조정했다. 1979년 중령으로 예편한 그는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60세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19년 동안 보잉747 점보기를 조정했다.

그러다 치매를 앓던 모친이 부산에 있는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일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께 불효를 했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그는 어머니 연세의 어른들께 무엇이든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요양원에서 본 치매 노인들의 더부룩하게 자라서 보기 싫었던 머리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이미용 학원에 등록하고 이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4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다. 그의 나이 70세였다. 그는 일주일에 4일 이상씩 강남, 마포, 종로, 금천 등에 있는 병원이나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하고 있다.

비행기 조종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이발사로 신분을 바꾸고 봉사하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많은 노인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봉사처럼 사람을 가치 있게 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행복이나 삶의 만족은 높은 신분, 많은 재물, 세상의 쾌락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 사람들과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느낀다면 나 또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과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도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봉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보자.

이달의 말씀 :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전 6:17-19)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3일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
일시: 1. 4(월) ~ 7(목) 장소: 속초 (3박 4일 숙박훈련)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에스컴

1) 학원복음화를 위한 청소년기도모임 "마가의 다락방"
일시: 12. 12(토) 오후6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기도실
2)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12. 19(토) 오후6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3) 고3 영성훈련 모집
일시: 2010. 1. 4 ~ 29 모집기간: 11월부터 선착순 40명
문의: 033)244-5400 에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 dove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졸업생파송채플 : 12. 4(금)
2) 성탄축하의 밤 : 12. 18(금)
3) 강원CCC겨울금식수련회 : 12. 28(월) ~ 31(목), 속초
문의: 252-0542, 254-5776

◆ 에수원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간사지망사역협의회 : 12. 9(수) ~ 12(토)
2) 학교별 수련회
- 교육대 : 12. 28 ~ 31
- 강원대 : 12. 15 ~ 18, 양평 생명샘동산
  주제 "다시 복음 앞에" 주강사: 전성일 목사
- 한림대 : 12. 27 ~ 31 문의: 070-8275-6358

3) 아름로운전 : 1. 3 ~ 16
주강사 : 김성한간사(IVF미디어 총무), 엄기홍목사(온누리교회 부목사)
대상 : 1년차 이상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4) 섬김이훈련 : 1. 3 ~ 16, 춘천 IVF회관
대상 2년차이상 IVF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
문의: 252-5200

◆ JDM

1) 한국간사수련회
일시: 12. 1(화) ~ 3(목) 장소: 세계제자훈련원
2) 중강채플
일시: 12. 6(주일) 오후7시 장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3) 청소년수련회 LTC
일시: 12. 27(주일) ~ 28(월)
문의: 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략회의 : 12. 1(화) ~ 4(금), 장소: 대부도
2) GBT선교학교 정기 및 세미나
일시: 12. 8(화) ~ 10(목) 장소: 송탄제일교회 안성수양관
3) 춘천지부 비전기도회
일시: 12. 14(월) 저녁7시 장소: 예담교회(GBT춘천지부)
4) 캠프 스탭모임
일시: 12. 22(화) 장소: 본부사당
5) GMF 수련회
일시: 12. 28(월) ~ 30(수) 장소: 미정
문의: 이선희 사무국장 010-9244-9094 churchson@x2025.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다윗의 장막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월드미션 예배
일시: 12. 7(월) 오후7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장소: 춘천광염교회 (에바갈 진흥API상가 맞은편)
2) 세대별 선교캠프
- 청년대학생선교캠프 (History Makers)
  일시: 12. 28~31, 호서대 아산캠퍼스
- 여성시니어선교캠프 (Kingdom of God)
  일시: 12. 31 ~ 2010. 1. 2, 호서대 아산캠퍼스
- 어린이선교캠프 킹덤-키즈 (Kimdom-Kids)
  일시: 12. 28 ~ 30 / 12. 31 ~ 2010. 1. 2
  장소: 도고 유스호스텔
- 청소년선교캠프 BTJ-Generation
  일시: 2010. 1. 4 ~ 7, 호서대 아산캠퍼스
  지부: 033)262-1040 E-mail: interpcc@empal.com

◆ 행복대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장수행복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항순 장로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부시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닭갈비 4층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 ~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미라클아카데미 (성령받고 피아노반주)

대상: 목회자 사모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일반성도
장소: 효신선교회 (춘천KBS신사옥 맞은편, 온의동)
문의: 010-5763-8868 다음카페: 미라클하모니
- 교회성가대 클리닉(찬양발성 · 지휘 · 반주) 방문

◆ English Worship 영어예배

일시: 매주 주일 오후2: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겟세마네성전
문의: 최은순 선교사 010-7123-8266

◆ 다니엘선교회-춘천노년원 교사모집

모집대상: 소년원 친구들에게 비전이 있으신 분
봉사내용: 그룹 성경공부 인도주 1회 이상
봉사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2시~4시 / 매주 주일 오후2시~3시
문의: 신북장로교회 조덕준 목사 011-9062-0415

◆ 한마음탁구회(기독교인들의 탁구동호회)

일시: 월-토요일 매일 아침 6:30부터
장소: 윤김중탁구교실(팔호광장)
회비: 월 4만원 문의: 010-3662-0664
- 동호회 수준의 탁구모임. 레슨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효자감리교회 성탄예배

일시: 12. 12(토) 오전11시 문의: 255-8865

◆ 춘천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점등식 & 쌀나누기

일시: 12. 5(토) 오후4시 장소: 명동 오거리 기업은행 앞
사랑의 쌀 나누기 : 12. 1 - 17 문의: 256-1260

◆ 12월 성시화 연합중보기도회(CCPN)

일시: 12. 4(금) 오후1시 유스아트홀(중앙로 중앙로지하1층)
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제: 춘천성시화와 교회연합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춘천장로교연합회 명패 붙이기 운동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합시다!

춘천장로교연합회에서는

춘천지역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춘천장로교회원교회의 명패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교단 및 교회(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011-9736-8957(장로교연합회 총무 이석진 목사)

* 춘천장로교연합 교회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 급 반 : 20명
□ 중 급 반 : 15명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 장 소 : 인디옥교회 구성전(남문천역 옆)
□ 운 영 : 3개월 코스 (St/Ar)
6만원(월2만원 × 3개월)
헌금/우원금으로 실경비 조달
□ 선 교 : 일반 시민 무료
□ 개 강 : 2010. 1. 12 (화)
□ 접 수 처 : 육림악기사 (☎252-5041),
인디옥교회 (☎269-9000)
□ 문 의 : 010-9366-4026

* 기타 중상단 모집
(남 4명, 여 6명)

통기타 대중시대 쉽게 배웁시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1월 사무국 예배가 24일(화) 오전 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김지한 목사(북부교회)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엡4:1~6)란 제목으로 "눈물의 기도와 헌신된 자가 부족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됨, 곧 연합하는 것뿐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연합운동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가 될 것을 믿는다"며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 평화한국 춘천방문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평화한국(대표 허문영 박사) 실무팀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춘천 지역의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시화운동과 통일한국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 기독영화 〈파이어 프루프〉 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11월 12일(목) 오후 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기독영화 〈파이어 프루프〉를 상영하였다. 결혼한 지 7년 된 젊은 소방원 케일럽이 아내와의 이혼 위기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부부관계를 비롯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영화이다.

■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회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정기기도회가 11월 13일(금) 오후 1시 유스아트홀에서 베드로선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춘천세계관학교(MPS) 섬김이 민경원 장로(순복음춘천교회)는 '선교세계관학교의 비전과 역할'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MPS는 춘천 선교자원의 네트워킹과 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춘천 성시화,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 춘천와이신협 적십자사 유공자 표창 금장 수상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이사장 심인섭)은 11월 18일(수) 대한적십자사 104주년 기념행사에서 작년 적십자 회원 유공자 은장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금장을 수상하였다. 춘천와이신협은 이익금 사회환원이란 경영 방침에 의거 매년 수익의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적십자 단체회비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령자 특별금리 가산, 장학금 지급, 각종 단체 후원 등을 통하여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장효근 목사)는 11월 11일(수) 오전11시 춘천그리스도의교회에서 2009년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예배 후 사업 및 회계보고 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신임회장으로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가 추대됐다. 조영호(59) 회장은 "춘천의 400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춘천 성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개선된 임원진은 수석부회장에 원종국 감독(춘천제일감리교회), 부회장에 박인관 목사(춘천광염교회), 김주극 장로(제일장로교회), 총무 이병철 목사(주향교회), 서기 장춘근 목사(남산교회), 회계 이진배 장로(성광교회), 감사 조영춘 목사(예광교회), 전은풍 장로(제일장로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춘천교역자연합회 정기총회



기독교연합회 총회에 앞서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 지용찬 목사)는 11일(수) 오전 10시 춘천그리스도의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박인관 목사(춘천광염교회)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총무에 오의식 목사(남춘천순복음교회)가, 감사 지용찬 목사(춘천은혜교회)와 장춘근 목사(남산교회)가 선출됐다. 박인관(54) 회장은 "목회자들의 위로와 격려, 친밀감을 위한 연합행사와 목회자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매월 춘천 성시화를 위한 목회자연합기도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정기총회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 김종익 목사) 2009 정기총회가 11월 25일(수) 오전 11시 춘천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신임원에는 회장에 지태성 목사(춘천교회), 수석부회장 정명훈 목사(예강교회), 총무 이석진 목사(광진교회), 서기 김지한 목사(북부교회), 회계 임길석 장로(동부교회), 감사 김원중 목사(우리교회)와 정태철 장로(신촌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장로교연합회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펼쳐 회원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20kg 80포대를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사랑의 온차 전달식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지회장 원기배)는 11월 27일(금) 오전11시 광장감리교회에서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갖고, 율무차와 커피 등 온차 100박스를 2군단 노병힌 군종참모에게 전달했다. 전방 초소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사랑의 온차가 전달된다.

■ 춘천드림교회 창립예배



춘천드림장로교회(담임목사 고성언) 창립예배가 11월 13일(금) 오후 6시30분 근화동 747-1번지에서 있었다. 노회장 김희균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박상호 목사, 한사랑교회 이영렬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시126:1~6)는 제목의 설교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고성언 목사는 순복음춘천교회 전도사 출신으로 순복음신학교, 야웨신학교 신학연구원 졸업, 야웨신학교 성경대학원 과정중이다.

■ 춘천CBS 다채로운 가을행사

● CBS가을음악회



춘천CBS(본부장 박만석)는 2010년 춘천레저총회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CBS가을음악회'를 11월 3일 오후 7시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고, 춘천시민 1,500명과 함께 혜은이, 김종환, 안치환, 마야, 유엔젤보이스가 가요와 팝, 가스펠로 풍성한 음악축제를 펼쳤다.

● 소년소녀합창단연주회



춘천CBS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진배, 지휘 손유리애) 제12회 정기연주회가 16일(월)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소년소녀합창단은 '기쁘게 주께 외치라', '손뼉치며', '아름다운 세상 주신 주께' 등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고, 모노춘천, 춘천레이디스 싱어즈, 하바스트링앙상블이 찬조 출연하였다.



● 가스펠 춘천 찬양축제

춘천CBS와 함께 하는 2009찬양축제가 18일(수) 오후 7시30분 신성교회에서 열렸다. 복음성가 가수 전용대, 노문환 외 7명이 1,0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운 가스펠 찬양축제의 시간을 가졌고 유영호 장로(YMCA 이사장)가 특별출연하여 자리를 빛냈다.

■ 아름다운 사랑의 연탄나누기



GBN강원방송이 춘천연탄은행,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연탄나누기' 생방송이 11월 20일(금) 낮 12시부터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춘천연탄은행 정혜창 대표는 "올해는 연탄값이 30%이상 인상했지만, 시민들의 훈훈한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창대교회 성전봉헌예배



창대감리교회(담임목사 박기성) 새 성전 봉헌예배가 11월 28일(토) 오전 11시 신성교회 김창수 목사, 감리교동부연회 원종국 감독, 원기배 춘천남지방감리사, 허천 장로 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지난 91년 1월 창립한 창대교회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08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하였다.

2010학년도 순복음강원신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 설립이념

본교는 기독교 정신과 본 교단의 교리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전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기사항

가) 각종 장학제도

나) 본교를 졸업한 자는 총회 목회대학원이나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 졸업 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다) 신학과 또는 목회학과 과정을 마친 자는 공히 본 교단에 가입한 후 전도사로 임명될 수 있다.

◈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정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방법
신학과 (야간)	4년제	20명	1.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 (단 편입생에 한함)	1. 필기고사 성 경 사 회 논 술 2. 면 접
목회학과 (야간)	4년제	10명		

◈ 교부 및 접수기간

* 1차 2009년 12월 21일(월) ~ 2010년 1월 18일(월)
* 2차 2010년 1월 19일(화) ~ 2010년 2월 22일(월)
* 교부 및 접수장소 : 본교 교부처 (순복음제일교회 내)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200-954 강원도 춘천시 효자 1동 591-45번지 Tel : (033) 257-3517 Fax : (033)257-3511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1월 5일(화) 개강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영적지도자 양성 및 훈련

신입생 모집

YHWH Theological Seminary

야웨(יהוה)신학교

2010년도 야웨(יהוה)신학교 신입생 모집

과 정	교육내용	수업일	제출서류
상담연구원 (M.A.equ.)	기독상담사 양성교육	주 1회 (월)	· 입학원서(다운로드)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 얼굴사진
성경학부 (B.Th.equ.)	성경연구 & 신학준비과정	주 2회 (화, 목)	
신학연구원 (M.Div.equ.)	목사(선교사) 양성교육	주 2회 (화, 목)	
성경대학원 (Th.M.equ.)	본문주해설교 & 성경교수법	주 1회 (월)	



신학과 영성
학업과 지성
생활과 정서
21세기 리더쉽
신학교의 모든것



한국교계의 지도자 양성
세계의 목회현장에 원하는
영적전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야웨 신학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뛰어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야웨 신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Admission

야웨신학교 춘천캠퍼스(YHWH Theological Seminary)
문의전화 033) 253-7942 / 010-8901-0059 / 010-3088-5079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47-1 (춘천드림교회)

- 서울캠퍼스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0번지 이앤씨 벤처드림타워 2차 1301호
  02) 3281-9256 / 011-340-5205
- 청주캠퍼스 :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20-1번지 뉴스모스선교교회
  043) 223-0975 / 010-5588-9848
- 해외캠퍼스 : 제 1 캠퍼스(G국) / 제 2 캠퍼스(G국) - 성경학부, 신학연구원, 성경대학원
  070) 8236-9256 / 019-375-9256

야웨신학교 춘천캠퍼스
YHWH Theological Seminary Chuncheon Campus